(737)

주체 106
(2017)
12

차　례

표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당복을 노래하며 춤바다를 펼친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사진 리광성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주체106(2017)년 10월 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또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도(시), 군 책임일군들, 주요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전원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이 상정되였다.

1.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2. 조직문제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오늘 우리 공화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 당의 당면활동과 경제발전방향,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고 우리 당이 키운 과학자대군과 우리 당의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군대와 인민, 자력갱생의 투쟁전통이 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인 조직문제를 보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전당, 전군, 전민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되였다.

글 김태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 중앙경축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특기할 10월 8일을 성대히 경축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만리마의 기상을 떨쳐가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지난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10월 8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 중앙경축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조선로동당과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토대를 마련하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여온 10여만명의 각계각층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이날 전국 각지의 도, 시, 군들에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 경축대회들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경축 평양시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야회 《우리 장군님 영원히 높이 모시리》가 8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진 **김일성**광장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였다.

전체 야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과 각 도들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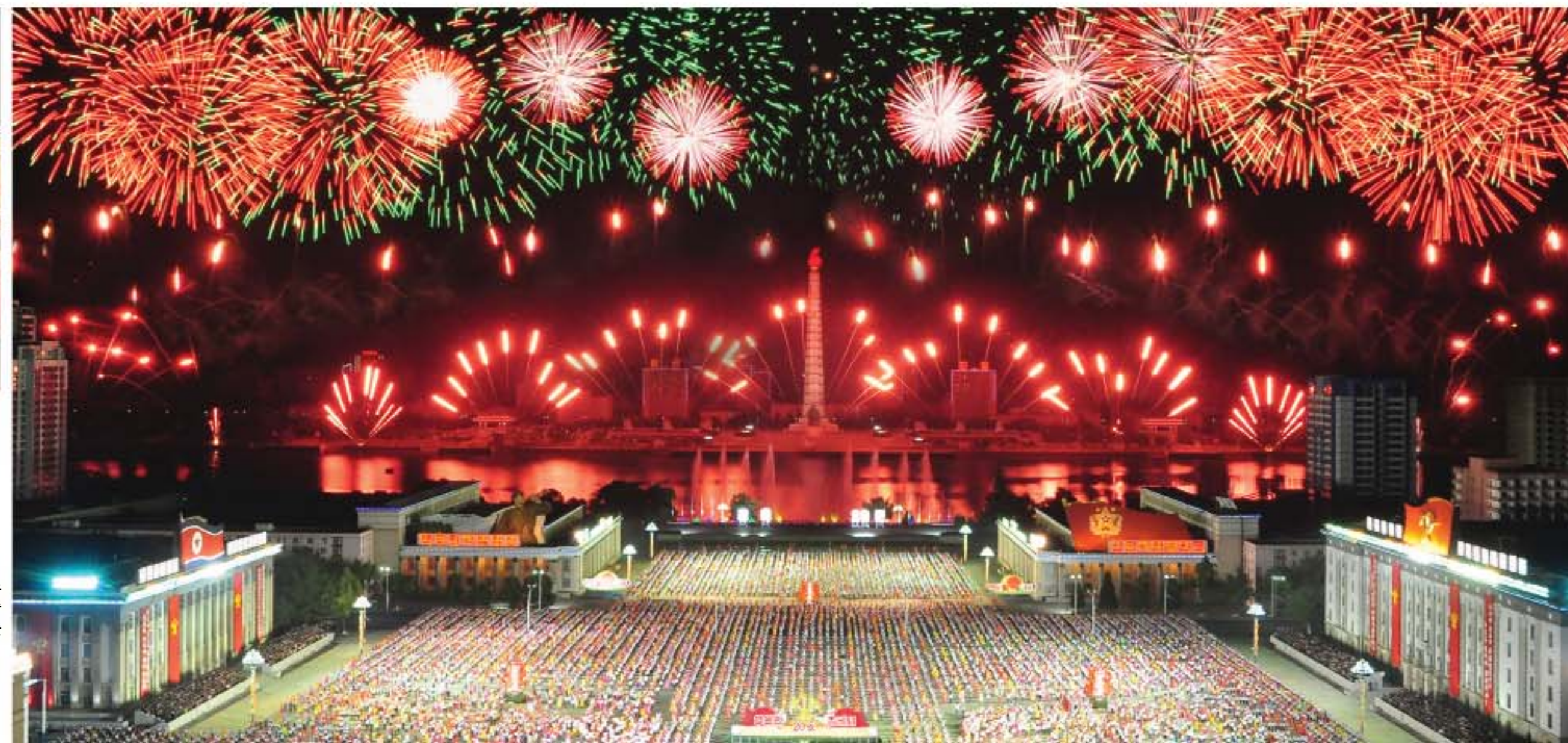
뜻깊은 력사의 날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각계층 군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쳤으며 평양의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경축 사진전람회와 전국웅변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사진 홍광남, 리광성 글 김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경축 평양시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야회 《우리 장군님 영원히 높이 모시리》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을 경축하여 사진전람회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이 진행되고 조선우표박물관과 조선우표전시장에 조선우표들이 집중전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과 각 도들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떨친 2017년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빛나는 자욱을 새긴 주체106(2017)년이 저물어 가고있다.

지나온 이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앙양된 열의가 뜨겁게 분출되여 훌륭한 결실을 안아온 해이다.

력사의 모진 풍파를 맞받아헤치며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치여가는 조선로동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 경축행사들을 비롯하여 올해에 진행된 각종 정치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과 혁명적대응전략을 밝혀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는 온 나라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속에 전력공업부문에서 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만부하를 보장하였으며 단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국내원료, 연료에 의한 철강재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추진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성능높은 기계설비, 대상설비들을 꽝꽝 생산해냈다.

경공업부문에서 현대적인 공장들이 늘어나고 질좋은 제품들이 생산되고있으며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더 많은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보내주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최악의 왕가물이 든 불리한 조건에서도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전야들에 알찬 이삭들이 주렁지게 하고 과일과 버섯, 남새농사에서 전진을 이룩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웅장화려한 려명거리가 솟아올랐으며 도처에 새 거리와 마을들이 일떠섰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이 이룩되였다.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며 나아가는 군중시위 참가자들

려명거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4월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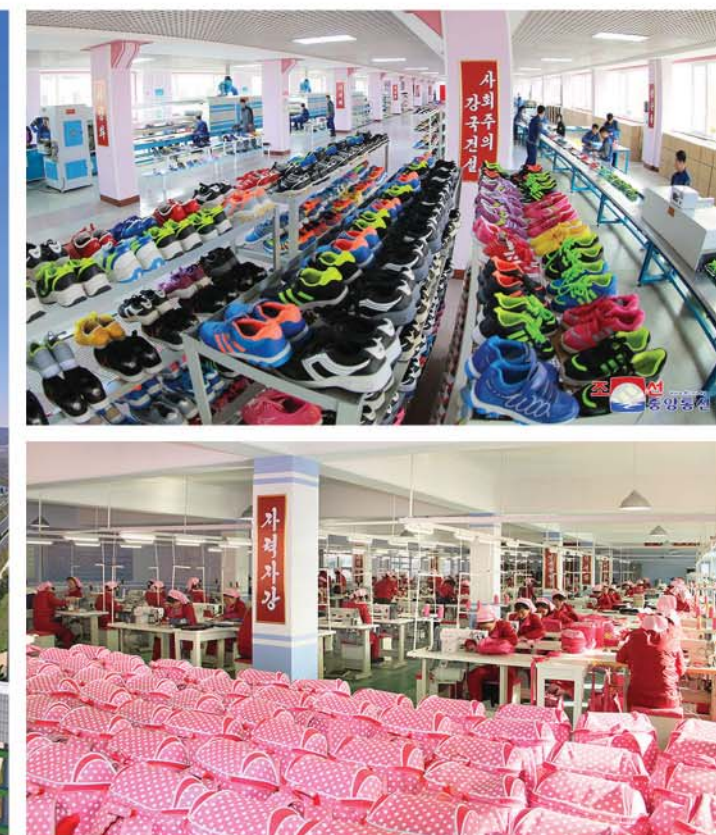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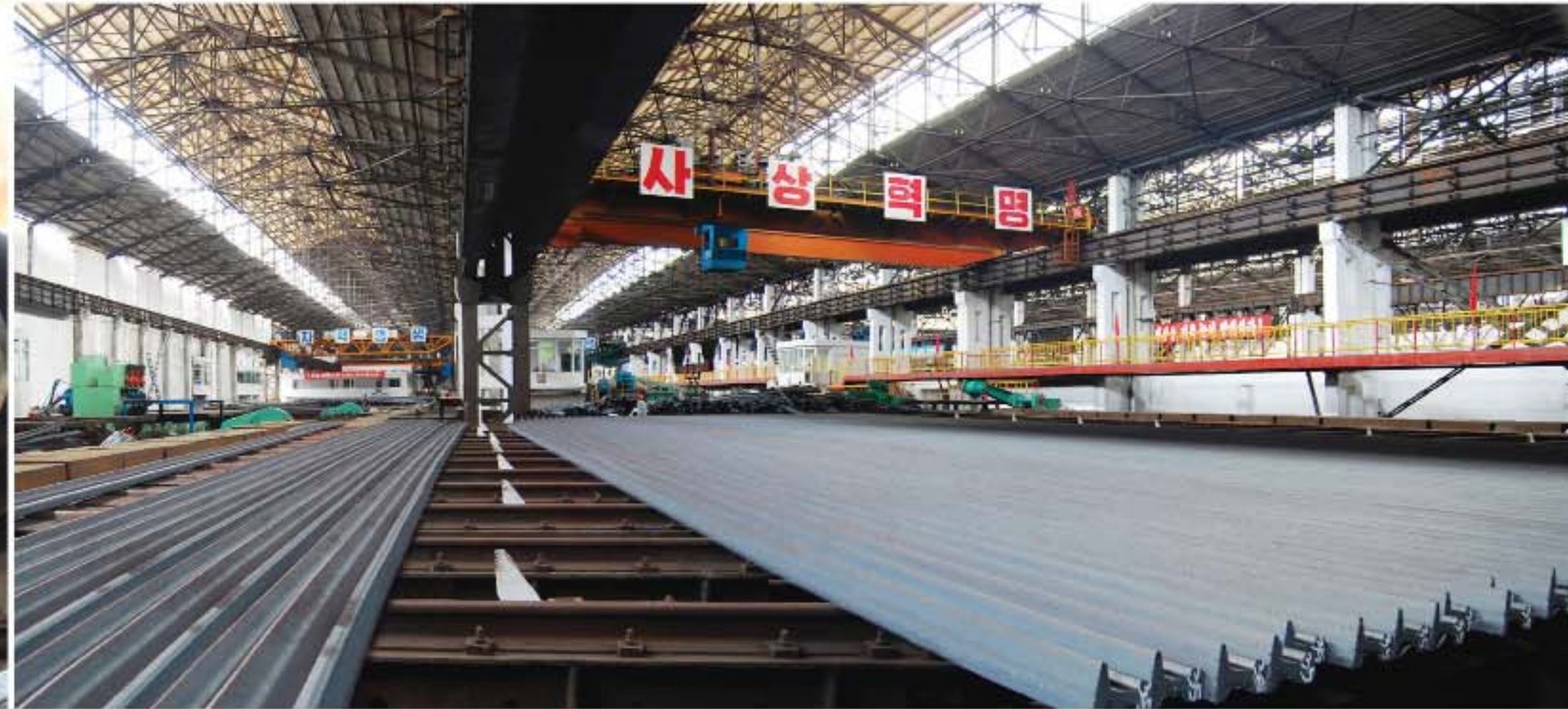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새롭게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사회적으로 거세차게 벌어지는 속에 평양초등학원, 함흥초등학원과 중등학원, 회령학생소년궁전과 연풍호소년단야영소 등이 준공되였다.

보건부문에서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끊임없이 인민들에게 가닿고 온 나라에 랑만과 희열이 넘치는 속에 전국의 백수십여개 기관, 기업소, 공장들이 모범체육단위로 되였으며 체육선수들은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만리마시대에로 선도하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예술활동으로 온 나라에 약동하는 기상을 펼치였다.

이해는 결코 순탄하게 흘러온 해가 아니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적전진을 바라지 않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은 올해에 들어와 더욱 로골적이였고 조선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으려는 그들의 횡포는 절정에 달하였다.

올해에 조선반도에는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더욱 짙게 서리였지만 조선인민군장병들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로,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국가핵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와 평양가방공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경공업공장들이 건설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가중되는 제재책동을 쳐갈기며 기계공업,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만리마속도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 5갱 고경찬영웅소대를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올해에 조선에서 일어난 특대사변들은 저절로 오지 않았으며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였다.

이 땅을 진감하며 승전포성들이 련이어 울리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경이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담대한 배짱, 령활한 지략과 애국으로 불타는 불굴의 헌신이 안아온것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제재결의》채택과 반공화국책동을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무한대한 힘으로 쳐갈기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줄기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감탄과 지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갔다.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해를 돌이켜보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우리의 앞날은 더욱 밝다는 승리의 신심안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글 최광호

홍건도간석지 2단계 3구역 1차막이공사 완공

과수의 고장인 황해남도 과일군에 희한한 과일대풍이 들었다.

전국도처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과 전쟁로병보양소들이 건설되였다.

체육인들은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참신하고 진취적인 예술활동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에 따라 국방과학부문에서 《3. 18혁명》, 《7. 4혁명》, 7. 28의 기적적인 승전포성을 안아옴으로써 공화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혁명의 만년초석을 다져주신 불멸의 업적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줄기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이 되는 12월 조선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주체45(1956)년 6월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여 그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을 열어놓으시는것과 함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이때로부터 전국적으로 혁명전통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이 확립되고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이 시작되게 되였으며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게 되였다.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3월

무포숙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옥련산밀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 사업을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체계화하는 사업이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벌어졌고 전국도처에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이 훌륭히 꾸려져 온 나라가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전변되게 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조선혁명박물관 참관과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백두의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들을 굳게 다지고있다.

전국적, 전사회적으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행군이 높은 열의속에 진행되고 그 과정에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이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가 어떻게 마련되고 주체혁명의 찬란한 미래가 어떻게 앞당겨지고있는가를 절감하면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들을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으로부터 보존관리와 그를 통한 교양사업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을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이라는 민족만대의 사상정신적재보를 가졌기에 조선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되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비약을 끊임없이 창조해가고있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시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고 조선혁명이 대를 이어 승승장구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부강번영할 사회주의조선의 천만년미래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글 홍정미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직속 구분대군인들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1월

무적의 철갑부대로 키워주시여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은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진 영광스러운 부대이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부대를 찾으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고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길에서 여러차례 찾으시여 현대전에서 땅크의 리용과 그 전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군인들을 유능한 땅크병으로 키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여 사단을 그 어떤 강적도 격퇴할수 있는 무적의 철갑부대로 강화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첫 군부대시찰의 자욱을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새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였을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사단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시에 훈련을 잘하여야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시에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적훈련기풍,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인민군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생을 바쳐 키워주신 총대동지들과 생사를 함께 하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을 끝까지 가시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겨주시였다.

오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장병들은 군부대에 아로새겨진 영광의 자욱을 가슴깊이 새기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무적의 철갑부대의 위용을 떨쳐가고있다.

글 김충복

친위전사의 빛나는 한생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바친 영광스러운 한생이였고 수령께 가장 충직한 친위전사의 별처럼 빛나는 생애였으며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고결한 생애였다.

주체6(1917)년 12월 24일 함경북도 회령시 오산덕기슭의 추녀낮은 빈농가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정숙동지는 일찌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 한몸 바쳐나설것을 마음다지시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여 녀성의 몸으로 손에 무장을 잡고 조국해방(1945. 8. 15.)의 력사적위업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 방침의 정당성과 진리성, 생활력을 심장속에 깊이 새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어디서나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에 대한 가장 숭고한 충실성과 수령결사옹위를 철석같은 신념으로, 모든 사고와 실천의 기준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보위자가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 싸우는것을 자신의 최대의 사명으로, 첫째가는 본분으로 여기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상생활뿐아니라 홍기하전투(1940년 3월), 대사하치기전투(1940년 초여름)를 비롯한 전투마다에서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수령님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28(1939)년 가을 대부대선회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600벌의 군복을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하시였으며 국내와 압록강연안에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시였다.

해방후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당, 건국, 건군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바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층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녀성들도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도록 계몽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정부정강작성사업과 헌법초안작성사업을 보좌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을 현대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업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회령고향집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주체30(1941)년 3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사용하시던 권총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를 조직하시고 당소조를 결성하신 석전양복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청봉숙영지에 남기신 구호문헌들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36(1947)년 3월

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어버이수령님의 후계자,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창창한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것이다.

정녕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혁명가의 고귀한 귀감으로, 백두의 녀장군으로 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글 강수정

지방녀맹일군들속에 계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주체36(1947)년 9월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주체38(1949)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제1중앙군관학교 제2기졸업식에 참석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주체37(1948)년 10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뜻은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제복에도 깃들어있다.

어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에 참석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주체36(1947)년 10월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굴지의 건재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주체78(1989)년 4월에 조업한 때로부터 지난 20여년간 세멘트증산으로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에 이바지하여온 기업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세멘트생산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다.

기업소에서는 나라의 풍부한 갈탄과 무연탄에 의한 소성로착화와 내화벽돌생산을 성공시킴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던 중유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술발전과와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방대한 새 기술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가압송풍기와 제진기를 포함한 백수십대의 설비들과 알란점결제를 비롯한 중요자재들을 개발생산하였다.

기업소산하 상원석회석광산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직굴을 뚫음으로써 산허리를 따라 뻗어있던 운광길이 없어지고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석회석을 다량처리할수 있게 되였다.

하여 세멘트회전로며 대형가소로 그리고 석회석광산과 내화물공장 등 기업소의 그 어디에서나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이 높이 울리여 올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의 수준을 돌파하였다.

사진, 글 리명국

기업소에서는 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올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새형의 뜨락또르가 생산된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조선에서 첫 뜨락또르를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으로 들끓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새형의 80HP 뜨락또르계렬생산을 목표로 내세운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완비와 부속품생산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직후라이스반과 스프라인연마반을 비롯한 설비들의 CNC화를 실현함으로써 가공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지구장비설계 및 제작도 동시에 내밀어 나라의 농촌지형조건에 맞는 표준설계를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유압조향장치의 회전자와 고정자본체를 비롯한 부속품생산도 앞세우고있다.

주물직장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원가를 줄이면서도 주물실수률을 높이였을뿐아니라 변속기본체와 크라치본체 등 각종 주물품들의 생산을 늘이고있다.

자동화직장에서는 표준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부속품들의 정밀도를 보장하고있다.

드넓은 조립직장에서는 각종 부분품들이 흐름선을 따라가면서 조립되고 완성된 뜨락또르들에 대한 시운전으로 발동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는 새형의 뜨락또르들을 사회주의협동벌에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병훈

조사직장

실검사실

침수공정

비단실생산에서 혁신을

잠업도로 널리 알려진 자강도에 있는 희천제사공장에서 비단실생산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미제를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일념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주인답게 하여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조사직장과 재조직장 등 공장의 그 어디에서나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면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설비들에 대한 기술개건에 힘을 넣어 많은 원료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비단실의 품질과 생산실수률을 높이였다.

비단실의 품질보장에 의의가 있는 누에고치솜뜯기설비에 2단식결면제거기를 새롭게 설치하여 효률을 98%이상 높인것이며 자견공정의 통합생산체계도입 등 2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공장에서는 연료소비기준이 25%이상 낮아지고 고품질의 비단실생산비중은 1. 5배로 높아졌다.

그리하여 지난 10월초에 년간 비단실생산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한 공장에서는 지금 더 높은 생산목표를 내세우고 경영활동을 보다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훈

재조직장

법적으로 담보되는 사회주의교육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장 제43조~제49조에는 교육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전반적의무교육제도와 무료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와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로 이루어져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누구나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반적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모든 새 세대들에게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것으로서 학교전 1년교육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되여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과학적인 교육체계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기둥감들로 자라나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에서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1945. 8. 15.) 직후부터 국가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주체48(1959)년부터는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하여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있을뿐아니라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주고있다.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과 본신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실시하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원격교육대학,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학생이자 곧 생산자이며 현직일군이다.

발전하는 시대와 함께 원격교육대학이 나오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각곳에 꾸려진 미래원들과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립되여있어 모든 어린이들이 소질과 재능을 꽃피우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있다.

조선인민은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해나가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강수정

국가에서는 학교전교육에도 힘을 넣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속에 모든 학생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기둥감들로 자라나고있다.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앞날의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해가고있다.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하여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있다.

신창마을에 넘치는 기쁨

사리원-해주간 도로를 따라 차를 달려 황해남도 신원군에 위치한 인공호수인 장수호를 지나 해주시와의 경계를 가까이 하느라면 오른쪽으로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농촌마을이 펼쳐진다.

나지막한 야산기슭을 따라 척 보기에도 아담하고 규모있게 자리잡은 이 주택지구가 신원군 신창리에 새로 일떠선 소재지마을이다.

신창리는 주체35(1946)년 10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친히 찾아오시여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앞으로 잘 살수 있는 방도도 하나하나 밝혀주신 뜻깊은 고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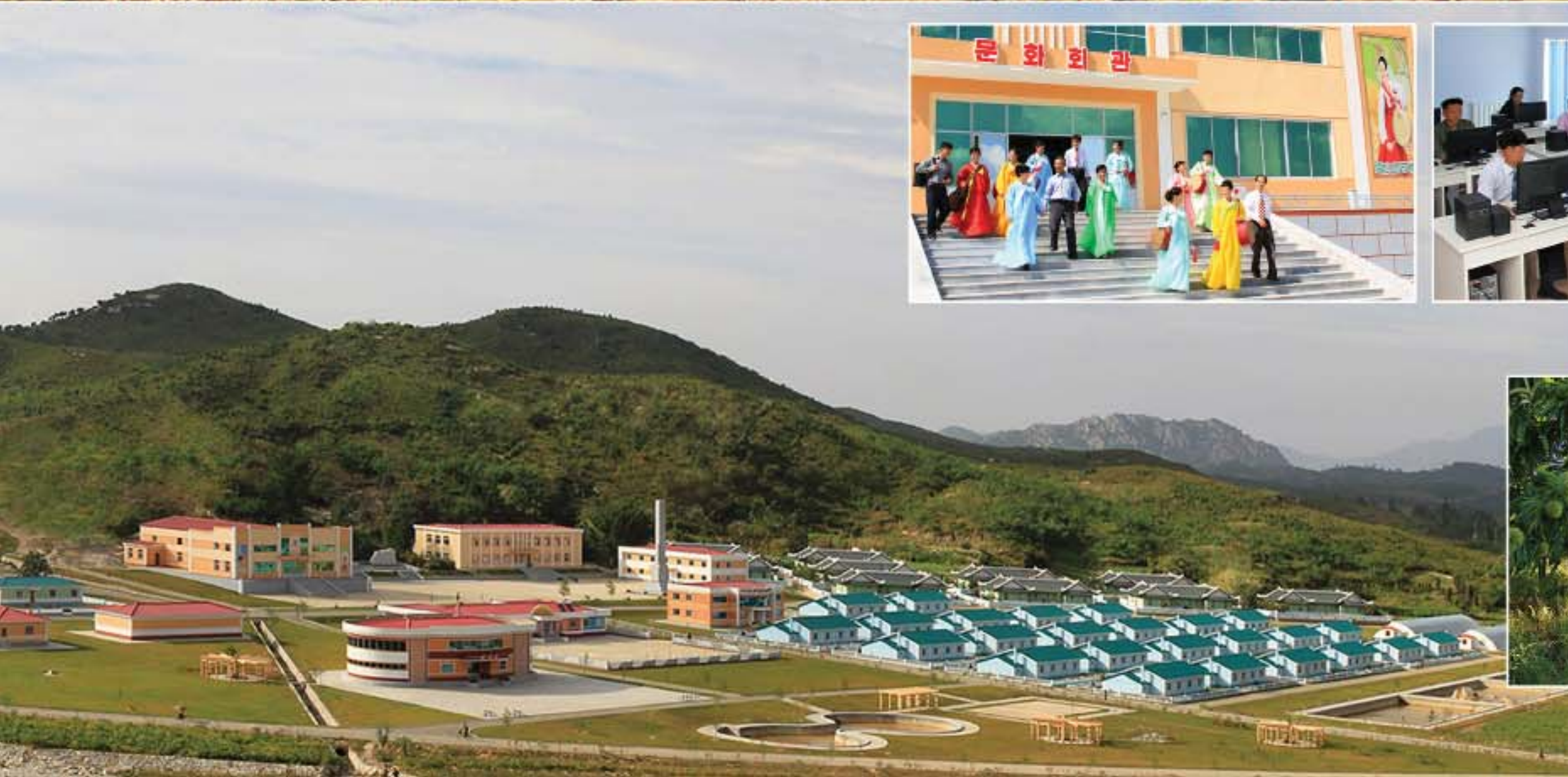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리를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더 잘 꾸려갈 일념안고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그리고 리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리소재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하여 한해남짓한 기간에 전실과 살림방들, 세면장과 창고 등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수십동의 문화주택들과 종합편의시설인 신창원, 농업과학기술보급실 그리고 양어장과 남새온실들을 건설하였다.

마을앞으로 흐르는 구암천에 새 다리가 놓이고 하천제방이 뻗어가는것과 함께 이미 있던 신원군 신창고급중학교 구암분교,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 문화회관, 상점 등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면모를 일신하였다.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터전에 새 보금자리를 편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자랑과 기쁨은 더 높은 농업생산성과를 이룩해갈 자각과 열의로 고조되고있다.

사진, 글 김윤혁

농장마을에는 문화회관,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 보건, 문화후생시설들이 꾸려져있다.

섬분교의 녀교원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쪽해상에는 장도, 책도, 원도들과 나란히 반성렬도를 이룬 수운도가 있다.

수운도는 오래전에 뭍에서 물을 날라다 먹었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파도소리만이 들리는 외진 수운도에도 학생들을 위한 분교가 자리잡고있다.

평북종합대학 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이다.

이 분교에는 지난 40년간 등대원자녀들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가 있다.

그가 바로 한혜영교원이다.

주체63(1974)년 10월 뭍에 나가 공부하는 어린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등대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등대섬들에 분교를 세울데 대한 나라의 은정깊은 조치에 의해 주체66(1977)년 9월에 학생이 몇명밖에 안되는 수운도에도 분교가 일떠서게 되였다.

당시 본교의 꽃나이 처녀교원이였던 한혜영은 외진 섬의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가는 뿌리가 되려는 마음을 안고 수운도분교 교원으로 자진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배워주기 위해 온 넋을 바치였다.

그 나날 섬아이들에 대한 처녀선생의 진정에 감동되여 찾아온 조국의 방선을 지켜섰던 끌끌한 제대군인총각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섬에 뿌리내린 혜영이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교편물들을 만들고 뭍으로 오고가면서 박제품들과 이야기책들, 참고서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물현상에 대한 표상이 적은 섬마을학생들에게 실물교육을 주기 위하여 불리한 섬환경과 기상기후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식물포전과 교재림을 만들고 분홍꽃아카시아나무, 수삼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피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을 심어가꾸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조국애를 안고 자라도록 이끌어주었다.

나라에서는 멀리 외진 섬에서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그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내세워주었으며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 전국영웅대회를 비롯한 뜻깊은 대회장들에 불러주었다.

지난 9월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또다시 받아안았다.

그는 40년전 홍안의 처녀시절 그 열정으로 머리에 흰서리내린 오늘에도 외진 섬의 등대원자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갈 마음 안고 분교의 교단에 서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병훈

평북종합대학 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 교원 한혜영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함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워준다.

인간생명을 위해 55년

황해남도인민병원 림상의학연구소 연구사 김주진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먼저 그가 지닌 정열을 꼽는다.

년로한 오늘에도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뜨거운 정성, 높은 실력으로 환자치료와 외과학 발전에 전심전력하고있는 김주진.

수술을 집도하는 공훈의사 교수 박사 김주진 (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

의료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는 5 600여건의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1 100여명의 중환자들을 사경에서 구원하였다.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 있던 시기 함경남도 리원군 곡구리에서 소작농의 맏아들로 태여난 그는 6살때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를 도와 어린 나이에 손끝에 피가 나도록 일했건만 제땅이 없어 마음껏 농사도 지어보지 못하고 언제한번 배불리 먹어볼수 없는 설음에 학교갈 나이가 되였어도 돈이 없어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는 설음이 나날이 덧쌓여갔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은 그에게 모든것을 다 가져다주었다.

나라의 토지개혁법령에 의해 땅 한뙈기도 없던 그의 가정에도 무상으로 수천평의 옥답이 분여되였고 주진은 꿈속에서나 바라던 학생이 되였다.

행복한 생활이 계속 될수록 때없이 떠오르는 것은 약한첩 써보지 못하고 돌아간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평양의학대학(당시)을 지망하였다.

열심히 배워 대학을 졸업한 그는 황해남도인민병원에서 외과의사, 과장, 기술부원장, 원장으로 일해오면서 언제나 식을줄 모르는 정열과 뜨거운 정성으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대학생들에게 림상학강의를 하고있다.

나이가 많아 연구사로 사업하는 오늘까지 지난 55년간 그는 위분문암에 대한 위전적출술을 비롯한 30여건의 수술방법들을 도입일반화하고 수십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을 키워냈으며 도서《외과전서》와 《복부외과학》 등 많은 도서들과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과 많은 훈장들, 공훈의사 교수 박사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지난 2월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80번째생일상을 받아안았다.

불타는 정열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으로 나라의 인민적보건시책을 받들어온 그의 55년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김선경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환자치료에 전심전력하고있다.

가정에서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해가는 조선에서는 옷차림문화가 시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있다.

《우리 천, 우리 옷》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15차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옷차림문화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잘 보여주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피복부문 기술자, 기능공, 학생, 가정부인들이 성의껏 준비하여 내놓은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남, 녀조선옷 700여점과 남, 녀갖신 50여점이 출품되였다.

전시회에 출품된 조선인민의 기호와 지향에 맞으면서도 밝고 부드러운감을 주는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 전통적인 형식을 살린 조끼, 배자, 마고자, 당의, 두루마기와 여러가지 갖신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전시된 조선옷들은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도 형태와 색갈, 무늬를 현대적미감이 나게 발전시킨것으로 하여 높아진 옷가공기술을 잘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시대적미감에 맞게 만들어진 여러가지 갖신들도 출품되여 특색있었다.

전시회기간 옷본보기공연, 조선옷과 관련한 강습과 경험발표회도 진행되였다.

사진 최원철 글 김옥경

전시된 조선옷들은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도 형태와 색갈, 무늬가 시대적미감에 맞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전시회에서는 시상식이 있었다.

전시회에 출품된 치마저고리들의 일부

희망을 꽃피워가는 장애자들

…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하지만 꽃피워주는 집이 없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고 말할수 없다.

나는 오늘 온 나라의 나와 같은 장애자들의 꿈을 꽃피워주는 희망의 집, 사랑의 집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

이렇게 시작된 수기 《희망의 집》에서 장애자 조설향은 소아마비로 하여 걸을수 없어 삼륜차에 실린 몸이지만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과 사회적관심속에서 살뜰히 돌봐주는 동무들과 나란히 앉아 공부도 하였으며 오늘은 조선장애자예술협회 문학소조원이 되여 문학가가 될 꿈을 꽃피워가고있다고 하면서 희망의 집, 사랑의 집인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이 있어 장애를 모르고 산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조설향만이 아니라 청력, 시력, 지체 등 각이한 장애자들모두가 국가의 보호와 사회의 관심속에서 소질과 취미에 따르는 다양한 생활로 생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고있다.

과학기술전당에 장애자열람실이 갖추어져있어 많은 장애자들이 알고싶고 보고싶은 자료들에 대한 열람을 하고있다.

장애자들을 위한 기능공학교에서 희망에 따라 피복가공기술이며 목공기술 등을 배우고 숙련한 장애자들은 높은 기능을 가지고 로동생활도 하고있다.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바이올린을 만들고있는 김승일은 롱인이지만 그가 눈과 손끝감각으로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바이올린들은 손색이 없어 호평을 받고있다.

장애자들은 체육과 예술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한다리와 한팔이 없는 장애자들만이 아니라 두팔이 없거나 두다리를 못쓰는 장애자들까지도 탁구를 치고 수영도 하고 활쏘기도 하고 있을뿐아니라 장애자올림픽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승의 단상에 오르고있다.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가진 장애자들은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술적기량을 높이고 공연활동에도 참가하여 국내외관람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진행된 평양장애자교류단의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놀랍기만 하다. 저렇게 훌륭한 음악적재능을 보고야 누가 장애자들이라고 하겠는가. 그들은 장애자가 아니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의 관심속에서 오늘 장애자들은 생의 희열을 안고 자기들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다.

사진 최명진 글 김태현

소질과 취미에 따라 즐겁고 보람있는 생을 보내고있는 장애자들

주체106(2017)년 5월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진행된 평양장애자교류단의 공연은 출연자들의 높은 예술적 기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낸곳 : © 조선화보사 2017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서철남 13606-781147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 - mail) : flph@star - co.net.kp

뒤표지: 사회주의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밝히며 축포가 오른다. 사진 공유일

백두의혁명정신
선군혁명총진군